

행복한 가을 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01 '내 꿈은 빛나라' 은해사 템플스테이 다녀와

교직원불자회 연우회는 회원 150여 명이 참여하여 10월 31일 1박 2일 동안 꿈 에너지 충전소로 알려진 영천 은해사로 템플스테이를 다녀왔다.

은해사는 신라시대에 창건한 사찰로 신라시대 원효 스님부터 최근 향곡, 운봉, 성철 스님 등이 수행한 사찰로 팔공산 에너지를 받는데 최적의 장소로 유명하다. 은해사 템플스테이는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이 잊고 있었던 꿈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산사의 정기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우회 회원들은 이튿날 은해사에서 운부암까지 3.5km 걷기 명상이 프로그램 중 백미였다고 전했다. 한 직원은 “솔 향 속에서 시냇물 소리와 잔잔한 바람을 느끼며, 걸어가는 시간은 팔공산의 에너지를 마음껏 충전 받았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에너지를 충전 받는 것 외에 치유를 위한 법산 큰 스님의 법문도 들었다. 스님은 “모든 인연은 좋은 업(선)과 나쁜 업(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전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을 것이며, 산사에서 보내는 1박 2일 동안 값진 경험을 하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년 가을 연우회에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는 전국 유명사찰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체험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여 참 의료를 실천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02 반갑다 연우야 '사랑재'봉사단, 가발 지원

사회사업실과 반갑다 연우야 '사랑재' 봉사단은 10월 16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 가발나눔을 실천했다.

이날은 3명의 암 환자에게 가발을 지원하였으며, 가발 지원 후에는 항암치료로 인해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고요한 대금연 주도 들려주어 환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반갑다 연우야 '사랑재' 봉사단은 2015년도에 가발 40개 지원을 약속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암 환자 가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03 의료인의 꿈을 이루어요.

동국대학교병원은 의료인을 꿈꾸는 파주지역 중·고등학교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 20일 직업체험을 시행했다.

이날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의 직업을 장래 희망으로 하는 '금춘청소년 문화의 집'에 소속된 파주지역 학생들로 학생들은 병원의 다양한 직종을 견학하면서 진로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견학 후에는 직종별 멘토 선생님과 희망직종의 부서를 방문해 일대일로 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멘토 선생님을 자칭한 간호사는 “꿈을 가진 멋진 학생들을 만나 반가웠고, 앞으로 꿈을 현실화해 병원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병원은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고, 진로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04 201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사전 제공

국세청은 11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통한 제도는 '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연계하여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절세를 더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더하여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감세액을 계산하여 유리한 쪽으로 사용액을 늘리면 된다. 또한,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지출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

국세청 홈택스 ▶ 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비회원]

국세청 홈택스 ▶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 비회원 전용 화면 ▶ 연말정산간소화

주인공 39호

의료정보팀

정운영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디지털기기의 빠른 변화는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벅찰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번 주는 프로그램을 사용자 입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술을 부려주시는 프로그램의 '마법사' 정운영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병원만 해도 EMR과 홈페이지 등 각종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에 근무할 때 EMR 등을 사용하며 사용법은 확실히 마스터 했다고 자부할 정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3년 7월 객상상담실로 발령 나면서 '고객의 소리'를 담당하다 보니,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홈페이지 사용이었죠. 관리자의 권한이 있긴 하나, 각종 민원의 수정이나 검색이 원활하지 않았고, 사용법은 왜 그리 어려운지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의료정보팀의 정운영 선생님께 SOS를 쳤습니다. 정운영 선생님은 바로바로 그리고 묵묵히, 목소리의 높낮이도 없이 “네. 확인해보세요”라고만 답했습니다. 정운영 선생님과 통화 후 컴퓨터를 열면 프로그램은 마법사가 요술을 부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수정되어 있었죠.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줄 때도 있지만, 매번 말씀한 날짜에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신해 있었습니다. 낮게 웃으시면서 마법을 펼치는 정운영 선생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저도 객상상담실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전혀 모르고 지나쳤겠지요. 저도 병원 안의 '마법사' 아니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정운영 선생님처럼 상담실을 찾는 고객들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180도 바뀐 모습으로 가실 수 있도록 변신하겠습니다.

고객상담실 류주희

알 리 미

무료영화상영 상영작: 암살 | 일시 : 11월 12일(목) 14:00 | 장소: 5층 대강당
창무도에연구원 전시회 기간: 11월 9일(월) ~ 11월 21일(토) | 장소: 1층 전시장